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동의 화행 양상 비교

Niu Lei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사 수료(제1저자)

권순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교신저자)

- I. 서론
- II. 비동의 화행의 개념 및 분류
- III. 연구 방법
- IV. 비동의 화행 빈도 및 양상 비교 분석
- V. 결론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비동의 화행을 할 때 나타나는 화행 양상을 비교 분석하여 외국인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의 시사점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능력이 중시됨에 따라 한국어 수업에서도 패턴화된 말하기, 문법 습득을 위한 말하기 능력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 할 수 있는 실제성, 맥락성이 포함된 말하기 능력을 더 강조하고 있다. 한국어 말하기 교육에서도 학습자들이 대화 상황에 맞게 발화할 수 있는 화용 능력에 중점을 두어 교육해야 한다. 화용 능력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인의 발화 방식을 잘 모르고 자신의 모국 문화의 사고방식으로 발화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무례한 느낌을 줄 수도 있으며, 한국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비동의를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과 오해가 커질 수 있다. 따라서 많은 대화 상황 중 쉽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비동의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사람마다 성장 환경, 사고방식, 성격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모든 생각을 다 인정하고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 중국과 한국은 같은 아시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역사 등의 차이로 인해 중국인과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체면과 기분을 고려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이 상대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에게도 필요하다. 특히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동의 화행을 한국어교육에서 필수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에서 진행된 비동의 화행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동의 화행의 개념과 범위를 다루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담화 완성 테스트(Discourse Completion Test, DCT)를 진행하여 중국인과 한국인의 비동의 화행 양상에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1.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가 한국어 비동의 화행 시 (비)공감 표현의 사용 빈도는 어떠한가?
2.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동의 화행 양상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3.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 및 중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선행연구

한국어교육 분야의 비동의 화행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한국어교육 분야의 비동의 화행에 관한 연구는 비동의 화행 중에 일종의 실

현 방식인 부정사 중심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대부분 연구는 부정사, 부정극어 등 정확한 문법 사용 면에 머물고 있고, 화용적 상황 즉 실제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루는 한국어 비동의 화행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한국어 비동의 화행에 관한 연구로는 비동의 화행의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실현 양상에 관한 연구(전정미, 2011 등), 언어 간의 비동의 화행 비교 연구(김태은, 2020; 이혜원·김은정·윤영심·이명지, 2021; 조은미, 2020; 후지이·지후미, 2022 등)가 있다. 우선 전정미(2011)에서는 비동의 화행으로 인해 갈등을 해결하거나 자신의 대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드러내는 전략적 측면을 ‘문제해결’과 ‘관계 개선’의 측면으로 살펴보았다. 비동의 화행 전략을 더 세부적으로 ‘자기중심 전략’, ‘상대방 중심 전략’, ‘회피 전략’과 ‘승승 전략’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비동의 화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문제해결’과 ‘관계 개선’의 측면에서 비동의 화행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담화에서 비동의 화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김태은(2020)에서는 담화 완성형 테스트(DCT)를 통해 한국어 모어 화자와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담화를 수집하여 비동의 화행 전략 실현 양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인 보다 비동의 화행을 사용하는 상황이 더 많고 또한 프랑스인은 비동의 화행을 체면 위협 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조은미(2020)는 사회·문화 간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비동의 화행의 차이에 주목한 연구이다. 비동의 상황 12개를 선정하여 한국인과 미국인 한국어 학습자 각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데, 한국인과 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과 전략 사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원 외(2021)에서는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 간 ‘평가’, ‘주장’, ‘충고’ 유도 화행별 비동의 화행 실현이 사회적 거리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DCT 상황 12개를 설

정하여 조사한 결과 사회적 거리와 지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모든 유도 화행에서 높은 빈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단정적으로 부정하며 비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어 모어 화자는 3개 유도 화행에서 형식적 표현하기를 비롯한 다중의 전략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완곡하게 비동의를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지이 지후미(2022)에서는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비동의 화행 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가족 내 지위와 심리적 부담감 두 변인을 중심으로 18개 상황을 구성하여 일본인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기혼여성, 일본인 기혼여성 각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DCT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한국 기혼여성보다 일본 기혼이주여성들이 명시적 비동의 전략을 피하고 암시적 전략이나 부가 전략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비동의 화행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편이다. 특히 언어 간 비동의 화행에 관한 비교 연구가 매우 드물다. 비동의 화행은 토론과 같은 공식적인 대화에서만 나타나는 화행 유형이 아니라 일상대화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화행 유형이다. 따라서 비동의 화행은 한국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 간의 비동의 화행 양상의 비교 연구 결과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그동안 다루지 않은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화자 간 비동의 화행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비동의 화행의 개념 및 분류

‘비동의(disagreement)’는 상대방의 진술이나 주장 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동의하지 않음을 표현하는 것은 상대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비동의(disagreement)’를 ‘반대’라는 용어로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먼저 이 용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명희(2017)는 반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김명희(2017)에 의하면 ‘반대’는 대화에서 단순히 부정적인 기능만이 아니고 화자들이 속한 문화, 상황, 지위, 친숙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는 복잡한 대화 유형이다. 이와 비슷하여 Sifianou(2012)에서도 역시 긍정적인 입장에서 ‘disagreement’를 살펴보았다. Sifianou(2012)에서 ‘disagreement’는 항상 대립이나 실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일종의 도움이 되는 대화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관계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 불일치 상황에 일어나는 발화 행위는 ‘반대’보다 ‘비동의’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disagreement를 ‘비동의’라는 용어로 논의할 것이다. ‘반대’라는 용어를 사용한 학자의 의견을 소개할 때에도 논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동의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소개할 예정이다.

비동의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언어 행위이므로 비동의 화행을 다룰 때 그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dstorm(2004)은, 비동의란 ‘상대방의 생각이나 관점, 혹은 신념과 다르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강하게 반박할 수도 있고 침묵을 통해서 부인하는 태도를 표현할 수도 있다¹⁾”고 언급하였다. 김명희(2017)에서는 반대란 “화자 S가 청자 A가 발화하였거나 주장한다고 여겨지는 명제 P를 옳지 않다고 여겨 P가 아닌 명제의 내용 혹은 함축을 담아 표현하는 발화”라고 정의 내렸다.

따라서 ‘비동의’는 단순히 부정하는 것이 아닌 발화자가 상대방의 생각,

1) Edstorm(2004)에서 “Expressions of disagreement, i.e., communication of an opinion or belief contrary to the view expressed by another speaker, may involve actively defending one’s opinion attacking another’s position, or quietly withholding approval”과 같이 비동의를 정의하였다.

관점, 혹은 신념과 일치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 것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 주장, 신념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내용까지를 비동의 회행으로 볼 수 있다.

비동의 회행의 분류에 관련된 논의는 우선 Rees-Miller(2000)에서 찾을 수 있다. Rees-Miller(2000)에 따르면 비동의 회행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약화된 비동의, 중립의 비동의, 그리고 강화된 비동의이다. 약화된 비동의는 공손성을 갖추어 반대하는 방식에 해당하며, 적극적 공손 전략과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나뉜다. 중립의 비동의와 강화된 비동의 회행은 공손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에 해당한다.

김명희(2017)는 Rees-Miller(2000)의 논의를 근거로 하여 소극적 공손 표현 중에 '미완성 문장'을 추가하고, 적극적 공손 전략 중 '1인칭 포함'을 제외하여 비동의 회행에 대한 분류를 <표 1>²⁾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1> 비동의 회행의 분류(김명희, 2017 수정)

| 비동의의 종류 | 언어 표현 |
|---------|--|
| 약화된 비동의 | 적극적 공손 전략 |
| | 소극적 공손 전략 |
| 중립의 비동의 | - 상반된 진술 - 반복표현 |
| 강화된 비동의 | - 수사의문문 - 강조어(아니야) - 2인칭 대명사 사용 - 비판적인 어휘 |

2) 김명희(2017)에서는 'disagree'를 '반대'로 번역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비동의로 수정하여 <표 1>을 제시함.

그 밖에 Liao Wuyan(2006)에서는 비동의 화행을 공손성 여부에 따라 공손성을 갖춘 비동의 화행과 공손성을 갖추지 않은 비동의 화행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공손성을 갖추지 않은 비동의 화행을 직접 비동의와 간접 비동의로 더 세분화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비동의 화행의 분류 (Liao Wuyan, 2006)

| 공손성 비동의 화행 | 비공손성 비동의 화행 | |
|--------------------|------------------|----------|
| | 직접 비동의 | 간접 비동의 |
| 1. 불확실한 표현(모호한 표현) | 1. 부정사 사용 | 1. 부정의문문 |
| 2. 동의 후 반대 | 2. 부정적인 의미 단어 사용 | 2. 명령문 |
| 3. 반대 후 동의 | | 3. 반어 |
| 4. 반대 정도 낮추기 | | |
| 5. 호칭어 사용 | | |
| 6. 자기 낮추기 | - | |
| 7. 어기사 사용 | | |
| 8. 요청 | | |
| 9. 긍정 표현 활용하기 | | |

Liao Wuyan(2006)에 의하면, 공손성을 갖춘 비동의 화행은 9가지가 있다. ‘불확실한 표현’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하지 않는 표현 방식을 의미한다. ‘동의 후 반대’와 ‘반대 후 동의’는 비슷한 비동의 화행 방식으로 상대방을 단순히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자신의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반대 정도 낮추기’는 상대방을 반대할 때 부담을 약화시키는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외에 호칭어와 어기사³⁾ 사용도 어느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게 하는

3) 중국어 어기사란 문장 끝에 붙여 화자의 감정이나 상태, 기분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을

효과가 있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반대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다. 또한 요청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과 반대로의 요청을 제시하는 표현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반대 의견을 상대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공손성을 갖추지 않은 비동의 화행에서 직접 비동의는 ‘부정사 사용’과 ‘부정적인 의미 단어 사용’ 양상이 있다. ‘부정사 사용’은 부정사를 직접 사용하여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의미 단어 사용’은 직접 부정사를 사용하지 않지만 좋지 않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비동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간접 비동의는 ‘부정의문문 사용’, ‘명령문 사용’, ‘반어 사용’ 양상이다.

또한 전정미(2020)는 비동의 응답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비동의 응답화행을 적극적 비동의 응답화행, 소극적 비동의 응답화행, 약화된 비동의 응답화행과 같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전정미(2020)에서 제시한 분석 틀은 다음과 같다.

〈표 3〉 비동의 응답화행 분석 틀(전정미, 2020)

| 하위 유형 | |
|--------------|-------|
| 적극적 비동의 응답화행 | 거부 표현 |
| | 이유 제시 |
| | 상반 의견 |
| | 이해 불가 |
| | 말 자르기 |
| 소극적 비동의 응답화행 | 되물기 |
| | 부분 인정 |
| | 추측하기 |

의미한다. 여기서에는 ‘啊, 呀, 呢’ 등이 있다.

| | |
|--------------|-------|
| 약화된 비동의 응답화행 | 확인 질문 |
| | 보류 |
| | 침묵 |
| | 사과 |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동의의 하위 유형이 비동의의 정도나 비동의에 대한 발화자의 의지에 따라 분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발화자의 구체적인 발화 방식에 따라 같은 유형에 속하더라도 청자는 비동의의 정도를 다양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발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전정미(2020)의 적극적 비동의, 소극적 비동의, 약화된 비동의로 나눈 유형의 경우 표현 내용과 표현 기법이 혼재되어 있어 유형의 한계가 불분명하다.

비동의 화행은 갈등을 상대적으로 쉽게 불러일으키는 화행 유형으로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 화자의 표현 방식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체면과 입장을 고려하면서 발화하는가, 혹은 상대방의 체면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발화하는가에 따라 발화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김명희(2017), 전정미(2020), Liao Wuyan(2006)에서 논의한 비동의 화행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상대방의 체면과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비동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상대방의 체면과 생각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완곡하게 자신의 비동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대방의 체면에 대한 고려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입장에서 비동의 의견을 표현하는가, 아니면 상대방 중심으로 표현하는가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공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비동의 화행을 크게 ‘공감적 비동의 화행’과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 두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공감적 비동의’는 ‘비동의를 공감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반응을 한 후 비동의를 표

현한다’라는 의미이다. ‘공감 후 비동의’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수 있으나 이 표현이 전문 용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공감적 비동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공감적 비동의 화행’과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 두 가지 범주를 더 세분화하여 여섯 개 비동의 화행 유형으로 분석 틀을 구성하였다.

〈표 4〉 새롭게 구성된 비동의 화행 양상 분석 틀

| 비동의 화행 범주 | 하위 범주 | | 예문 |
|-------------|-------------|-----------|--|
| 공감적 비동의 화행 | 1. 반응 | | 그래?/그렇구나~/아? 그래요? |
| | 2. 인정/이해 | +상반 의견 제시 | 그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
| | | +제안하기 | 계획 좋지. 그치만 무계획도 계획이 될 수 있어. 그동안 네가 계획을 세워서 여행 다녀봤으니 이번엔 자유여행 어때? |
| | 3. 확인 질문 | |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은데? |
|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 | 4. 부정 표현 | | 아닌데~ 뭔 소리야~ |
| | 5. 상반 의견 제시 | | 나는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게 좋다고 생각해. |
| | 6. 대안 제시 | | 그럼 따로 먹자! |

위의 분석 틀에 따라 ‘공감적 비동의 화행’은 ‘반응’, ‘인정/이해’, ‘확인 질문’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고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은 ‘부정 표현’, ‘상반 의견 제시’와 ‘대안 제시’로 나누었다.

‘공감적 비동의 화행’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인정이나 이해 과정이 포함되는 비동의 화행이다.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은 자신의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문제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발화하는 방식이다.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은 서로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자신의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

는 데 중점을 둔 직설적인 표현이다.

이 분석 틀에 근거하여, 수집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DCT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한국어 비동의 화행 양상 차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각 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 20일부터 24일 까지 1차 DCT를 진행하였다.

1차 DCT 참여자의 정보는 〈표 5〉와 같다. 1차 DCT는 한국인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였다.

〈표 5〉 DCT 참여자 구성

| 연구 대상 | 인원(명) | 성별 | 학력 | 한국어 능력 |
|----------------|-------|----|--------|----------|
|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 | 30 | 여 | 대학(원)생 | TOPIK 6급 |
| 한국어 모어 화자 | 30 | 여 | 대학(원)생 | 해당 없음 |

또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 비동의 화행 양상의 차이에 모어(중국어)와 한국어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중국어로도 동일 문항에 DCT를 작성하도록 진행했다. 그러나 동일 시점에서 중국어와 한국어로 DCT를 작성하도록 하면 즉석에서 번역 하여 답변할 우려가 있어 3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DCT는 1차 DCT에 참여한 중국인 학습자 중 25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중국어로 문항에 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CT 상황 및 문항 사례를 보이면 〈표 6〉과 같다.

〈표 6〉 DCT 상황 및 문항 사례

| 번호 | 사회적 거리 | DCT 상황 및 문항 |
|----|--------|--|
| 1 | 소 | <p>친하지 않은 후배는 여름 방학 때 알바하고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방학 때 공부하고 졸업 논문을 빨리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p>후배: 저 방학 때 알바하려고요.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나(선배): _____</p> |
| 2 | 소 | <p>친하지 않은 선배는 A가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A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p> <p>선배: A는 진짜 내성적인 사람이야. 나(후배): _____</p> |
| 3 | 소 | <p>친하지 않은 동기가 자신의 적성이나 관심을 연결시킬 수 있는 직업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돈을 적게 벌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 <p>동기: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나: _____</p> |
| 4 | 친 | <p>친한 친구가 쌩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 한다. 수술을 하면 더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p> <p>친구: 난 쌩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 나: _____</p> |
| 5 | 친 | <p>친한 친구는 쌀국수가 마리탕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p> <p>나: 마리탕 먹으려 가자. 마리탕 맛있어. 친구: 나는 마리탕보다 쌀국수가 더 맛있던데. 나: _____</p> |
| 6 | 친 | <p>친한 친구는 여행을 갈 때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계획 없이 가서 상황에 맞추어 여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p> <p>친구: 여행 갈 때 계획을 잘 세우고 계획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 더 좋지. 나: _____</p> |

연구 대상이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중국인 대학(원)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DCT 상황을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설정하였다. 비동의 대화는 권력 관계의 차이가 많이 존재하지 않을 때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대화 양상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주로 학교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친구, 동기, 선후배 간의 비동의 화행 상황을 설정하였다. 또한 사회적 거리의 친소관계는 비동의 화행 양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DCT 상황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사회적 거리가 너무 멀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차이가 큰 사람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비동의 대화 상황은 DCT 상황에서 제외하였다. 권력 관계가 연구 대상보다 높은 경우, 연구 대상자가 비동의 화행을 구사하기 쉽지 않거나 과도한 공손 전략을 활용하여 비동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IV. 비동의 화행 빈도 및 양상 비교 분석

1. 비동의 화행 빈도 분석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비동의 화행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공감적 비동의 화행’과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았다. 사용 빈도 결과를 제시하면 〈표 7〉, 〈표 8〉과 같다.

〈표 7〉 비동의 화행 빈도 결과 (중국인 CKL)

| 비동의 화행 범주 | 하위 범주 | 상황/ 단위: 회 | | | | | | 합계(%) |
|-------------------|-------------|--------------|----|----|----|----|----|-----------|
| | | 1 | 2 | 3 | 4 | 5 | 6 | |
| 공감적 비동의 화행 | 1. 반응 | 3 | 0 | 9 | 12 | 5 | 0 | 29(11.3) |
| | 2. 인정/이해 | +상반 의견 제시 | 10 | 9 | 1 | 3 | 9 | 3 |
| | | +제안하기 | | | | | | 35(13.6) |
| | 3. 확인 질문 | 2 | 11 | 2 | 1 | 1 | 2 | 19(7.4) |
| | 합계 | 15 | 20 | 12 | 16 | 15 | 5 | 83(32.3) |
|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 | 4. 부정 표현 | 1 | 3 | 0 | 8 | 2 | 4 | 18(7.0) |
| | 5. 상반 의견 제시 | 14 | 15 | 12 | 25 | 28 | 22 | 116(45.1) |
| | 6. 대안 제시 | 6 | 2 | 20 | 0 | 1 | 11 | 40(15.6) |
| | 합계 | 21 | 20 | 32 | 33 | 31 | 37 | 174(67.7) |

〈표 8〉 비동의 화행 빈도 결과 (한국인 KNS)

| 비동의 화행 | 하위 범주 | 상황/ 단위: 회 | | | | | | 합계(%) |
|-------------------|-------------|---------------|----|----|----|----|----|-----------|
| | | 1 | 2 | 3 | 4 | 5 | 6 | |
| 공감적 비동의 화행 | 1. 반응 | 17 | 14 | 10 | 23 | 11 | 6 | 81(27.2) |
| | 2. 인정/이해 | + 상반 의견 제시 | 12 | 9 | 7 | 2 | 13 | 13 |
| | | + 제안하기 | | | | | | 56(18.8) |
| | 3. 확인 질문 | 11 | 2 | 4 | 9 | 2 | 3 | 31(10.4) |
| | 합계 | 40 | 25 | 21 | 34 | 26 | 22 | 168(56.4) |
|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 | 4. 부정 표현 | 1 | 3 | 4 | 2 | 0 | 2 | 12(4.0) |
| | 5. 상반 의견 제시 | 14 | 20 | 12 | 26 | 15 | 12 | 99(33.2) |
| | 6. 대안 제시 | 1 | 1 | 14 | 0 | 1 | 2 | 19(6.4) |
| | 합계 | 16 | 24 | 30 | 28 | 16 | 16 | 130(43.6) |

〈표 7〉, 〈표 8〉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동의 화행 유형에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공감적 비동의’는 32.3%로 나타났으며 ‘비공감적 비동의’는 67.7%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인의 경우는 ‘공감적 비동의’가 56.4%로 나타났으며 ‘비공감적 비동의’가 43.6%로 나타났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공감적 비동의’ 화행을 사용하는 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동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어떻게 명확하게 표현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상대방의 심리나 태도를 고려하면서 비동의 화행을 하는 능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표 8〉을 통해서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비동의 화행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난 전략 순으로 정리하면 ‘비공감적 상반 의견 제시(45.1)’ > ‘대안 제시(15.6)’ > ‘인정/이해(13.6)’이다. 이와 비교하여 한국인의 결과는 ‘비공감적 상반 의견 제시(33.2)’ > ‘반응(27.2)’ > ‘인정/이해(18.8)’ 순으로 나타났다.

비동의 상황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비공감적 상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하면 중국인의 경우 한국인보다 11.9%P 가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가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 평소 고급 수준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동의 화행 가운데 여전히 다양한 표현 방식에 익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반응(11.3%)’, ‘인정/이해(13.6%)’ 등 사람 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발화 방식을 사용하기보다 비동의 화행 상황에서 의견 표현(45.1%)과 문제 해결(대안 제시, 15.6%)에 더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중국인과 한국인 비동의 화행 양상 비교 분석

비동의 화행에서 같은 유형의 발화를 하더라도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

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양상에 차이가 있다.

1) 공감적 비동의 화행 양상

‘공감적 비동의’ 화행에는 ‘반응’, ‘인정/이해’와 ‘확인 질문’이 있다. 먼저 ‘반응’의 사용 양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 1)

KNS1-5: 그렇구나. 면저는 너의 앞길을 응원하고, 너만 팬찮다면 내 생각도 나누고 싶네. 나는 ~(이유) 해서 너가 방학 동안 논문 쓰는 걸 추천 할게. 한번 더 고민해봐.

KNS2-5: 그렇구나. 나도 예전에는 쌍꺼풀 수술하고 싶었는데, 나이가 들면 수술한 부분이 쳐지고 계속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효과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게 되었어요.

KNS2-26: 그래? 난 홀꺼풀⁴⁾도 매력 있다고 생각해서 ㅋㅋㅋ 지금도 너 충분히 예쁜데!

KNS4-29: 오 그런가요? 저는 A가 상당히 외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 엄청 잘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서요.

(예 1)에 제시된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반응’ 발화 양상을 살펴보면 상반된 의견을 표현할 때도 상대방의 말에 대해 먼저 반응해준다. 이러한 반응은 대화 분위기를 조절하고 반대의 강도를 약화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돋는 기능을 수행한다. 원활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반응은 중요하다.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반응한다. 예를 들면 ‘그렇구나’, ‘그래’, ‘그런가요’, ‘진짜요’, ‘글쎄’ 등이 있는데, 이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그래’가 나타났지만 사용 빈도가 적을 뿐 아니라 단일화된 표현으로 반응함

4) 한국어 모어 화자 중에 ‘홀꺼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쌍꺼풀이 없는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을 알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인 학습자들이 ‘인정/이해’를 사용하는 양상도 간단한 표현으로 인정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데 비해 한국어 모어 화자는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으로 발화를 구성하였다.

다음 (예 2)에 제시한 양상들은 비동의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화에 대해서 인정 혹은 이해한 후에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을 제시하는 비동의 화행이다. 이는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좀 더 부드럽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표현 전략이다.

(예 2)

KNS1-20: 아 그렇구나~! 경험이 중요하지 ㅎㅎ 알바하면서 배우는 거 많이
있을 거야..!! 언니도 최근에 알바 다녀왔는데 시야가 한층 넓어지더
라. 방학에 공부에 대한 계획도 있어??

KNS1-30: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런데 난 개인적으로 방학 때
집중해서 졸업 논문을 빨리 끝내는 걸 추천해. (이후 이유 설명) ~~~
해서 공부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개인적인 의견이야.

KNS5-21: 옹옹 맞지! 돈 중요하지..!! 돈 어느 정도 벌면서도 나에게 잘 맞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

KNS6-21: 그치 어느 정도의 계획 중요하지.. 근데 막 계획 없이 노는 것도 나름
의 재미가 있지 않아??

CKL1-5: 알바는 좋지만 학업은 더 중시해야 해요.

CKL1-11: 경험 쌓는 것 물론 중요한데 나는 빨리 졸업하고 싶어요.

CKL5-9: 돈은 중요하죠 나는 적성에 맞는지도 꼭 생각해야 할 것 같아.

CKL6-14: 그거도 좋지만 나는 가끔 계획 없이 가서 상황에 맞추어 여행하는
게 더 즐거워! 뭔가 여유로운 느낌이야 ㅎㅎㅎ

한국어 모어 화자의 발화 양상을 보면 상대방의 생각에 대한 인정, 자신의 실제 경험을 나누면서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등 여러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에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인정하는 의도가 드러나지만 대부분 ‘~지만’, ‘~ㄴ/는데’와 같이 한국어 습득 과정에서 흔히 배우는 문법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 양상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인과 한국인의 발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우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예시를 살펴보겠다.

(예 3)

KNS1-15: 그런데, 언니 생각에는 알바보다는 현재 학생으로서 공부하고 논문을 쓰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한다는 생각이 들어.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까?

KNS1-18: 먼저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에 집중하는게(→집중하는 게) 필요할거 같다. 빨리 논문 쓰고 졸업을 하고 다음 진로로 가야 세월을 아낄수 있다.

KNS4-3: 아 그래요? 저는 A가 ~이러이러해서 외향적인 줄 알았어요. 선배님께서 느낀 내성적인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KNS6-16: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나는 여행이 계획 없이 가서 상황에 맞추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괜찮을까?

CKL1-9: 나는 오히려 공부하고 논문 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 그래야 빨리 졸업할 수 있거든.

CKL1-22: 경험보다는 빨리 졸업하는 것 더 중요하더라고요.

CKL4-18: 아니요. A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CKL6-20: 계획이 없으면 더 편해. 그냥 거기 가서 여행지의 사람들이 물어보고 어떤 것을 더 맛있나 하면 돼.

CKL6-26: 그냥 마음대로 해요. 상황에 맞추어 여행을 가요.

(예 3)에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인 모어 화자의 비동의 화행 양상을 보면 동일하게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데도 한국인보다 중국인 학습자가 더 직설적으로 자신의 비동의 의견을 표현한다. 한국인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해도 ‘반응’이나 ‘확인 질문’ 같은 공감적 비동의 화행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자 하는 표현.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인정을 얻으려고 하는 질문 방식이 보인다. 이에 비해 중국인 학습자는 ‘상반 의견을 제시’할 때 의견이나 생각을 중심으로 직접 표현하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대안 제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예 4)와 같다.

(예 4)

KNS1-2: 응! 근데 대학원 과정은 논문을 최대한 빨리 써서 졸업하는 것이 좋으니 가능하면 알바로 경험을 쌓는 것보다는 졸업 논문에 더 시간투자를 해서 논문을 빨리 쓰는 것은 어쩔지 제안해요.

KNS3-3: 내가 마라탕을 정말 좋아해서 마라탕 전문가거든. 이번엔 내가 가는 맛집으로 안내할게. 같이 가보자. 쌀국수는 다음번에 먹자.

KNS3-9: 나는 마라탕!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 먹고 싶은 거 먹자!

KNS6-19: 그럼 니가 계획 세워.

KNS6-29: 오 나는 아닌데 ㅎ 그럼 너가 계획 짜면 되겠다야 ㅎ

CKL2-11: 그럼 따로 먹자.

CKL2-14: 그러면 이번에 같이 쌀국수를 먹고 다음에 마라탕 먹으러 갈까?

CKL6-3: 야 인생은 떠나다면(→ 떠난다면) 떠나는 여행이지, 아무 계획 없이
나랑 한 번 여행해 봐!

CKL6-19: 난 그거 하기 싫어. 그럼 니가 해.

CKL6-30: 그럼 네가 계획 세우고 우리 계획대로 먼저 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냥 상황에 따라 하자.

‘대안 제시’를 할 때 중국인은 바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비해 한국인의 경우는 상황이나 이유를 설명하고 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의 경우는 공감해주지 못하는 점 때문에 다소 딱딱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청자가 느끼는 호불호의 태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예 4)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청자가 느끼는 호불호의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춘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문법, 어휘, 발음의 중요성 못지 않게 화용적인 내용 이해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문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도 화용적으로 오류가 생기면 여전히 의사소통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3.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와 중국어 비동의 화행 양상 비교

2.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간의 비동의 화행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모어 화자보다 ‘공감적 비동의’ 화행에서 사용 빈도가 적고 상대적으로 인정과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하고자 1차 DCT에 참여한 중국인 중 25명을 대상으로 중국어 비동의 화행에 대한 2차 DCT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본고에서 제시한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

면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중국어 비동의 화행 빈도 결과 (중국인 중국어 답변)

| 비동의 화행 범주 | 하위 범주 | 상황/ 단위: 회 | | | | | | 합계(%) |
|-------------------|-------------|--------------|----|----|----|----|----|----------|
| | | 1 | 2 | 3 | 4 | 5 | 6 | |
| 공감적 비동의 화행 | 1. 반응 | 0 | 12 | 1 | 0 | 0 | 3 | 16(8.8) |
| | 2. 인정/이해 | +상반 의견 제시 | 11 | 5 | 10 | 11 | 5 | 13 |
| | | | | | | | | |
| | 3. 확인 질문 | 2 | 1 | 2 | 5 | 1 | 1 | 12(6.6) |
| 합계 | | 13 | 18 | 13 | 16 | 6 | 17 | 83(45.6) |
|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 | 4. 부정 표현 | 0 | 1 | 0 | 2 | 0 | 0 | 3(1.6) |
| | 5. 상반 의견 제시 | 14 | 17 | 13 | 6 | 14 | 14 | 78(42.9) |
| | 6. 대안 제시 | 4 | 3 | 0 | 3 | 8 | 0 | 18(9.9) |
| 합계 | | 18 | 21 | 13 | 11 | 22 | 14 | 99(54.4) |

<표 9>에 의하면 중국인 고급 학습자들이 중국어로 표현할 때 ‘공감적 비동의’ 화행(45.6%)과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54.4%)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 ‘공감적 비동의’ 화행(32.3%)과 비공감적 비동의 화행(67.7%) 간에 나타난 수치와 크게 다르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로 비동의 화행 수행할 때 여전히 비동감적 비동의 화행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하면 한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특별히 이해와 공감한 후에 의견이나 생각을 제시하는 ‘공감적 비동의’ 화행은 한국어를 사용할 때보다 중국어를 사용할 때 13.6%에서 30.2%로 크게 증가하여 16.6%P 차이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와 한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 차이가 있다. 모국어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가 한국어로 수행할 때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고 공감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직설적인 느낌을 주는 비동의 화행 양상을 보이는 것보다 중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 상당히 많은 ‘공감적 비동의’ 화행을 사용하고 논리적이고 부드럽게 의견을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 5)

CC1-5: 兼职积累经验也是挺不错的事情, 但是我是觉得研究生期间肯定还是要以学习为重, 要是为了兼职耽误本职学习的话会不会有点可惜呢? 但肯定还是以你的想法为主, 你想好了就去做吧. (알바로 경험 쌓는 것도 괜찮은 일이네. 근데 내가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에 학업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알바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주면 아깝지 않아? 근데 너의 생각이 더 중요해, 고민을 잘하고 하면 돼.)

CC5-5: 钱肯定是很重要的, 主要是我想着说这不是刚毕业嘛, 可能还需要多一点积累, 能够做喜欢的工作并且学到东西是我目前觉得更重要的吧? 但是可能工作两年后我就不这么想了哈哈哈.(돈은 중요하지. 근데 내가 지금 막 졸업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잖아, 아마 경험을 더 많이 쌓는 것이 필요해.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많은 것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아마 일을 2년이나 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하하하.)

CC6-16: 我就特别佩服你们这种做事前计划的人, 我就是太懒了, 懒得做计划, 就干脆顺其自然了. 不过你想不想试试这种惊喜的感觉? 根据此时此刻的心境再决定下一步, 这种感觉也很奇妙的, 我是很爱这种感觉的, 你也试一次

바! (나는 정말 너희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는 사람들을 존경해. 나 그냥 정말 게을러, 계획을 하는 것도 게을러. 그냥 되는 대로 해. 근데 너 이런 서프라이즈와 같은 느낌을 경험해보고 싶어? 지금의 마음 따라 다음 스텝을 결정해. 이런 느낌도 신기해. 나는 정말 이런 느낌을 좋아해. 너도 한번 해봐!)

CC6-6: 啊? 可能我是p人, 我更喜欢随心所欲一点儿, 不过有你计划很好, 我在你的计划范围内随心所欲哈哈哈哈.(아? 아마 내가 P 성형의 사람이라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더 좋아해. 근데 네가 있어서 계획할 수 있는 것도 너 두 좋아. 내가 너의 계획 속에서 마음대로 할게. 하하하.)

(예 5)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 양상을 보면 모두 다 상대방에게 충분한 인정과 이해를 제시한 후에 자신의 비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동의 화행을 다양하게 사용하였고 한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보다 확인 질문을 하면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예 5)에 나오는 인정과 이해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을 위한 인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와 생각 자체를 인정해주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 3), (예 4)에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는 보이지 않던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모어 중국어를 사용하여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에는 발견된다. 특별히 “알바로 경험 쌓는 것도 괜찮은 일이네”, “나는 정말 너희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계획하는 사람들을 존경해”, “근데 네가 있어서 계획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아”와 같은 표현들은 비록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의견과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의미를 담은 표현이다.

(예 6)

CC1-6: 来留学, 我觉得重心还是应该放在学业上, 因为我们来留学的主要目的还是学习, 但是如果想要兼职的话, 要平衡好时间, 以及衡量一下这份兼职能给你带来什么益处, 如果不能合理支配时间以及兼职只是单纯的体力劳动或没什么实质性的能力提高的话, 我建议还是将重心放在学业上比较好.
(유학하려 오면 중심을 공부에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에 오는 이유는 공부 때문이야. 근데 정말 알바를 하고 싶으면 공부의 시간과 균형을 잡아야 해. 그리고 이 알바가 너에게 뭐가 유익한지도 고려해야 해. 시간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냥 단순히 힘으로 하는 일이고 너에게 도움이 되는 발전점이 없으면 학업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해.)

CC1-10: 我是比较推荐你利用假期时间写论文, 因为学期内的时间肯定是不够用的, 写论文本来也是越早准备越好.(내가 방학 시간을 활용하여 논문을 쓰는 것을 추천해. 왜냐하면 학기 중에는 시간이 반드시 부족할 거야. 논문을 쓰려면 일찍부터 준비하면 좋아.)

CC2-6: 我觉得你现在已经很好看了, 做双眼皮手术还是存在风险, 有可能失败, 你看某某明星做手术之前多好看啊. 做完反而没有之前好呢? 我希望你慎重考虑.(내가 너 지금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해. 쌍꺼풀 수술을 하면 위험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그 ○○ 연예인 봐봐, 원래 얼마나 예뻤는데 쌍꺼풀 수술하고 나서 오히려 원래보다 예쁘지 못하게 됐어. 신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어.)

CC2-16: 你肯定是最近刷手机又刷到了双眼皮广告了吧? 我觉得你现在这样也很好看了啊, 单眼皮就非常适合你的脸型. 而且关键是双眼皮手术后有一个恢复期啊, 你想想你的工作, 天天要见人, 朝九晚五, 不仅会影响你的形象, 而且对你的身体恢复也不利, 我觉得还是别去了.(너 틀림없이 요즘 휴대

전화를 보면서 쌩꺼풀 수술 광고를 봤지? 나는 너 지금도 예쁘다고 생각해. 무쌍은 원래 너의 얼굴형이랑 잘 맞아. 게다가 쌩꺼풀 수술하면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생각해 봐,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매일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9시 출근 오후 5시 퇴근, 너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리고 회복에 대해서도 안 좋아. 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CC4-16: 嗯嗯, 她有时候确实挺内向的, 不过我上次看到她在校庆舞台上表演唱歌哎, 说明在这方面还挺外向的, 这么一想她给人的感觉还蛮有反差感的.(네네, A는 가끔 내성적인데, 근데 지난번에 학교 축제에서 A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한 것을 봤어요. 이런 면에서 좀 외향적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면 이 A는 반전이 있는 사람이네요.)

(예 6)에 나오는 중국인 학습자들의 비동의 화행을 보면 자신의 의견을 논리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또한 상대방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유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어로 한 발화 내용을 보면 중국인 학습자들이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을 배려하여 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국어로 된 내용에서는 이러한 점이 미미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하는 것과 모어(중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하는 것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차이는 외국어교육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고려만이 아니라 대화를 할 때 청자를 배려하는 관계적 소통이라는 화용적 지식 및 수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특별히 한국어로 표현할 때 나타나지 않았던 배려와 공감이 모어로 표현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외국어를 배울 때 모어 전이를 그동안 많이 논의해 왔는데, 모어 전이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구사할 때 메시지 전달 면에서 유창하다 하더라도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 및 언어 예절과 같은 실제적 언어 상황에 대한 표현 능력을 더 향상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V. 결론

본고에서는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동의 화행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인과 한국인이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 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중국인과 한국인 비동의 화행 양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비동의 화행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DCT를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은 모두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DCT 문항도 학생의 실제 상황에 맞게 학교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대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DCT는 여섯 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비동의 화행의 특성과 실제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의 대화 상황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국인 고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동의 화행 빈도수 및 양상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 모두 비동의 화행 유형 중 ‘상반 의견 제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상반 의견 제시’ 양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경우는 33.2%가, 중국인의 경우는 45.1%가 ‘상반 의견 제시’를 사용하였다.

둘째, 비공감적 비동의 양상은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공감적 비동의’ 양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서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공감적 비동의’ 중 ‘반응’을 한국인(27.2%)이 중국인(11.3%)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인정/이해’도 한국인(18.8%)이 중국인

(13.6%)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같은 비동의 화행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인과 한국인의 표현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같이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비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 및 한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할 때를 비교하면, 같은 비동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 표현할 때 공감적이고 배려적인 내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유창하지 않은 외국어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 개인의 언어사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관계를 고려한 화행 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비동의와 비슷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어떻게 상대방의 체면을 고려하여 발화할 것인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것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 실태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태와 비교하여 그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비동의 화행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실제적인 언어 상황과 맥락 안에서 화·청자 간 관계를 고려하고 공감, 배려를 하는 한국어 화행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제성에 기반한 한국어 화행 교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4.4.30. 투고되었으며, 2024.5.12. 심사가 시작되어 2024.6.7. 심사가 종료 되었음.

참고문헌

- 김명희(2017), 「한국어와 영어의 과업중심대화에 나타난 반대표현의 양상」, 『담화와 인지』 24(4), 1-20.
- 김태은(2020), 「한국어 모어 화자와 프랑스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에 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혜원·김은정·윤영심·이명지(2021), 「사회적 거리와 지위에 따른 한국어 모어 화자와 태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유도 화행별 비동의 화행 연구」, 『이중언어학』 84, 339-368.
- 전정미(2011), 「비동의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한말연구』 29, 325-352.
- 전정미(2020), 「구어 말뭉치에 나타난 비동의 응답화행 연구」, 『한말연구』 55, 215-242.
- 조은미(2020), 「비교문화적 화용론의 관점에서 본 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후지이 지후미(2022), 「일본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비동의 화행 연구: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Edstrom, A. (2004), "Expressions of disagreement by Venezuelans in conversation: re-considering the influence of culture", *Journal of Pragmatics* 36(8), 1499-1518.
- Liao Wuyan (2006), 留学生的汉语否定语言行为表达的习得研究, 기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Rees-Miller, J. (2000), "Power, severity, and context in disagreement", *Journal of pragmatics* 32(8), 1087-1111.
- Sifianou, M. (2012), "Disagreements, face and politeness", *Journal of pragmatics* 44(12), 1554-1564.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의 비동의 화행 양상 비교

Niu Lei · 권순희

한국어 비동의 화행 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9월에 담화 완성 테스트(DCT)로 수집된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인과 한국인의 비동의 화행 양상에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를 규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모어의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중국인 학습자 25명을 대상으로 중국어로 담화 완성 테스트를 실시하고 비동의 화행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 두 집단 모두 비동의 화행 유형 중 ‘상반 의견 제시’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중국인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45.1%가, 한국어 모어 화자의 경우 33.2%가 ‘상반 의견 제시’를 사용하였다.

둘째, 비공감적 비동의 양상은 중국인 학습자에게서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반면, 공감적 비동의 양상은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서 더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공감적 비동의 중 ‘반응’을 한국인(27.2%)이 중국인(11.3%)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인정/이해’도 한국인(18.8%)이 중국인(13.6%)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같은 비동의 화행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인과 한국인의 표현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는 여러 가지 방식을 같이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비해 중국인 학습자의

경우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국인 학습자가 중국어 및 한국어로 비동의 화행을 수행할 때를 비교하면, 같은 비동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로 표현할 때 공감적이고 배려적인 내용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비동의 화행 실태를 한국어 모어 화자의 실태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비동의 화행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핵심어 비동의 화행, 담화 완성 테스트, 한국어교육, 화법 교육,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 모어 화자

ABSTRACT

Comparison of Disagreement Speech Acts between Advanced Chinese Learners of Korean and Native Korean Speakers

Niu Lei · Kwon Soonhee

To investigate the use of disagreement speech acts in Korean,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data collected through the Discourse Completion Test (DCT) in September 2023 for 30 Chinese advanced Korean learners and 30 native Korean speakers.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in the use of such acts between Chinese and Korean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influence of native language is responsible for these differences, we conducted a DCT in Chinese on 25 Chinese learners and examined the patterns of use of the aforementioned acts. This study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response type to the disagreement speech act was “presenting a conflicting opinion” in 45.1% and 33.2% of advanced Chinese learners and native speakers, respectively.

Second, the pattern of unsympathetic disagreement appeared at a higher rate in Chinese learners, while that of empathic disagreement appeared at a higher rate in native Korean speakers. Among empathic disagreements, Koreans (27.2%) used “response” more than Chinese (11.3%), and “recognition/understanding” was also used more often by Koreans (18.8%) than Chinese (13.6%).

Third, even when using the same disagreement speech act, the expression methods of Chinese and Korean people were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y used various methods together and expressions that gave the other person a softer feeling, whereas the former expressed their opinions or thoughts directly.

Fourth, when comparing when Chinese learners perform disagree-

ment speech acts in Chinese and Korean, they used more empathic and considerate content when expressing in Chinese in the same situation.

We compared the disagreement speech acts of Chinese Korean language learners with those of native Korean speakers and identified the differences, thus providing implications for education on disagreement speech acts.

KEYWORDS Disagreement Speech Act, Discourse Completion Test, Korean Education,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Chinese Learners of Korean, Native Korean Speakers